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34명 전담...당직의사도 1명뿐

환자 40명당 의사 1명·환자 6명당 간호사 1명 규정 어겨

당일 인원 8명 부족...노인 돌발 행동·응급상황 대처 불가능

관리 허점이 부른 人災

장성 요양병원 참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리 인력과 허술한 환자 안전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여성 1명이 노인 환자 34명 관리=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1차적 원인은 병원 측의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별관 2층에는 여성 간호조무사 1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별관 2층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누워 생활하는 환자, 치매 환자 등 34명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혼자서 34명을 돌보는 셈이다. 요양병원 환자 특성상 1명을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의료법도, 자체 안전규정도 안 지켜=요양병원은 의료법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수 40명마다 의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는 하루 입원환자 6명마다 1명꼴로 두도록 했다.

아간에는 환자 200명당 의사 1명을 두

도록 했고 200명 초과시 200명마다 의사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 당일 입원 환자가 324명인 것을 고려하면 의사 2명이 있어야 하지만 당시 의사는 1명에 불과했다.

자신들 스스로 약속했던 규정도 지키지 않아 화재 발생 당시 근무 인력이 8명이나 부족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 인증을 받을 당시 제출한 '화재대응지침' 매뉴얼을 통해 야간, 휴일 시 최소 24명이 근무하면서 응급 상황에 대비키로 했었다. 하지만 정작 화재 발생 당일 근무 인원은 당직 의사를 포함, 16명에 불과했었다. 스스로 만든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허술한 환자 관리=치매·알코올 환자들의 특성을 무시한 허술한 환자 관리도 문제다. 지난 2009년 2월 19일 입원 환자 이모(71)씨가 보호자 없이 요양 병원을 벗어났다가 지나가던 군용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었다.

병원 주변 주민들도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잘 돌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무단이탈 한 뒤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며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28일 새벽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환자들이 보훈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날 보훈병원을 비롯, 광주지역 주요병원에는 환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화재 알린 뒤 소화기 들고 혼자서 불끄려다 참변

살신성인 간호조무사

5년전 사별 뒤 두 자식 키워

관리과장은 혼신의 심폐소생술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고령의 환자를 구하기 위해 홀로 소화기를 들고 유독 가스 속으로 뛰어 들었다가 숨졌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유독가스를 마신 채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위해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다.

간호조무사 김귀남(여·52)씨는 28일 새벽 0시 27분께 요양병원 별관 2층 당직실에서 근무를 서다 비상벨 소리에 복도로 뛰쳐나갔다.

김씨는 다용도실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 함께 있던 동료에게 "빨리 본관으로 가 화재 사실을 알려라"고 외치며 본능적으로 복도에 배치된 소화기를 들고 다용도실로 뛰어갔다. 침대 매트리스와 링거병 등 각종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유독가스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불길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 들었다.

김씨는 끝내 다용도실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광양시 옥곡면에서 '호녀'로 소문나 있다. 김씨는 광양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해 숨질 때까지 매주 찾아 돌보며 보살폈고,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자식을 홀로 키우면서도 한번도 힘든 기색을 하지 않았다.

김씨 사위(33)는 "장모님은 모든 것을 딸과 나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성국 병원 관리과장의 희생자를 줄이려는 혼신의 노력도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은 화재 뒤 실려나온 희생자들이 거의 숨을 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희생자의 가슴팍을 눌러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 과정은 광주KS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갑작스런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었느냐. 심폐소생술을 하고, 몇명을 화재 현장에서 구해낸 게 수십명이 숨진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무 마음이 안좋아 더이상 말을 못하겠다"며 울먹였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아무 설명도 없고...공무원은 뭐하는 사람인가” 유족들 항의

“우리는 서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 곳에 앉아서 뭐하는 거냐.”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수습에 나선 장성군과 병원 관계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28일 오전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원 앞에 설치된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 유가족이 공무원들을 향해 “도대체 이곳에 앉아서 뭐하는 거냐”고 거세

게 항의했다.

이 남성은 “유가족 대기실조차 만들어 놓지 않은 채 대책본부라는 모양새만 갖춰놓고 병원 확인만 하고 있다”며 “2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다”고 반발했다.

항의 이후에야 대책본부는 병원 본관 1층에 유가족 대기실을 서둘러 설치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광주 첨단병원·수안

병원 등 10여 곳에 흩어져 있는 21명의 사망자를 한 곳에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초기 구조가 미흡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화재로 아버지를 잃은 한 중년 여성은 “숨지거나 병원으로 이송된 치매 환자 대부분이 혼자서도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화재 초기에 직원들이 제대로 대피를 시켰다면 이처럼 큰 피해는 없었

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가족도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었는지, 구조 작업에서 잘못은 없었는지 밝히라”고 따졌다.

참사가 발생한 효사랑요양병원의 이형석 원장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2007년 개원한 노인요양전문병원

심평원 평가 1등급...324명 입원중

‘효 사랑병원’ 어떤 곳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11월 27일 개원한 노인요양전문병원이다. 현재 효사랑병원엔 치매·알코올 환자 등 324명이 397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설·인력·진료 등이 우수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2009년에는 1등급, 2010년 적정성 평가에서는 2등급을 받았다. 우수 요양병원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참사가 관리부실로 피해가 커진 점을 감안하면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11월27일 개원한 이래 두 차례나 폐업과 재개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효사랑병원은 건물 안에 매점을 설치하고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현재 효사랑병원엔 진료부·간호부·진료지원부·행정부 등 4개 부서가 있으며 양방·한방·집중치료실·치치수술실 등이 있다.

진료과목은 내과·정형외과·일반외과·가정의학과·정신과·한방내과·사상체질외과·한방부인과·침구과 등이다.

직원 수는 의사(6명)·한의사(3명)·간호사(21명)·간호조무사(60)·기타(37명) 등 모두 127명이다.

한편,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사랑병원(연 면적 5575㎡·1686.4평)은 본관(지상 3층)·별관(지하 1층, 지상 2층) 두 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병동은 모두 4개로, 병실 수는 53개다. 환자 연령대는 대부분 60~80대이며, 불이 난 별관 2층엔 34명이 입원중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트

신세계백화점 / 밝은광주안과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특보
희망가득전환대출
※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추천
골목상권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연 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

아룅기공주식회사 사원모집

당사는 40년 전통의 오일펌프 전문 제조업체로서 국내 및 수출증가와 해외 법인 성장에 따른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모집부문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관리직	기술	경력,신입	기계설계(컴프)가능자 및 경력자 우대
	품질		기계(컴프)분야 경력자 및 영어가능자 우대
	영업관리		여직원, ERP가능자
	생산기술		MCT,CNC관리 유경력자 (회직자 시간제 근무 가능)
생산직	수령기사	신입	수령 경력자 우대
	생산직		참고 정리 및 수출품 포장

2.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이력서 상단에 응시분야 및 희망 년봉 표기)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E-Mail (r3714@nate.com) 접수

4. 급여조건 : 당사규정 및 본인 면접후 결정

5. 복리후생 : 4대보험, 주5일근무, 상여금500%, 각종경조비지급, 중식제공,통근버스(광주)운행

6. 제출기한 : 2014. 5. 28 ~ 2014. 6. 10

7. 근무지 : 본사 담양 공장 (동광주 IC에서 20분 거리)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기획본부 (061-380-2201) 문의요함

아룅기공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달소로 48 (우 : 517-811)
Tel:061)380-2200 Fax: 382-3094